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고전문학 콘텐츠 웹툰 <향단년>의 창작 방식

The Creation Method of the Classic Literature Content Webtoon *Hyangdandion* in the Digital Media Era

정보라미*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재해석해 큰 인기를 얻은 웹툰 <향단년>의 창작 방식을 분석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주목할 만한 고전문학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보고하고 고전문학 작품을 지역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향단년>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단년>이 향단과 변학도를 서사의 주인공으로 호출하고 배경 서사를 새롭게 구축해 다양한 청년들의 애환과 고충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 나가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이는 <춘향전>이 제기한 춘향의 주체성 문제와 맥이 닿는바, <향단년>이 춘향전의 인물, 사건, 배경뿐 아니라, 그 주제 의식 또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변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향단년>이 다양한 고전 서사를 활용해 고전 서사의 상호텍스트성을 구현했음을 살폈다. 이에 <향단년>은 서사가 풍성해질 수 있었을뿐더러, 익숙함에서 오는 흥미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통한 신선함을 갖출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향단년>이 주요 플랫폼을 통해 장편의 형태로 연재됨으로써 지역 브랜드 웹툰임에도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웹툰들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재미를 제공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음을 밝혔다.

핵심어 향단년, 춘향전, 고전문학 콘텐츠, 고전 콘텐츠, 변용, 지역 브랜드 웹툰

- 차례**
1. 서론
 2. 춘향 서사의 변용
 3. 고전 서사의 상호 텍스트성 구현
 4. 지역 문화콘텐츠로의 재창작
 5. 결론

1. 서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인 지금 다양한 고전문학 작품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향유되고 있다.

고전문학 작품들이 현대소설, 드라마, 영화, 동요,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재해석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전소설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춘향전>의 경우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시트콤 등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로 50회 이상 제작되었을 정도로 크게 주목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고전문학이 웹소설, 웹툰 등의 디지털 콘텐츠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전임연구원

츠로 새롭게 재창작되어 널리 향유되는 것은 아무래도 오래되지 않는 일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놓이게 된 <춘향전>은 네이버 웹소설의 <춘향 2020>, <춘향같은 소리하고 있네>, <향단전>, <향단이는 누가 죽었나>나 카카오 페이지의 <춘(春) 봄바람은 향기롭고>, <춘향전에서 들러리로 살아남기>, <춘향환상곡>, <발칙한 춘향>, <백설춘향전>과 같은 웹소설로, 네이버 웹툰의 <발칙한 춘향>, <춘향전설>이나 카카오 페이지의 <바닷속의 춘향>, <향단전>과 같은 웹툰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향단전>은 2025년 4월 현재 카카오 웹툰에 178만 명, 카카오 페이지에 17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하며¹ 10점 만점의 독자 평점에 무려 10점을 받는 등² 대중적 인기를 크게 얻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향단전>은 남원시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그 일환으로 창작한 웹툰이다. 남원시가(주)리앙에이지와 공동 제작한 이 웹툰은 로맨스 코미디 장르에 속하는데, 현대를 사는 여주인공 유희기가 우연히 <춘향전>의 향단이 되어 고군분투하며 전개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향단전>은 총 2부의 54화로 기획된바 2024년 4월 4일에 연재가 시작된 이래, 1년간 매주 수요일에 1화씩 무료 공개되어 4월 15일에 마지막 편인 54화가 업로드되었다.

이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향단전>이 대

중적 인기를 크게 얻은 웹툰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주목할만한 고전 콘텐츠의 성공 사례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관(官) 주도로 지역 문화자산인 <춘향전>을 주요하게 활용한 웹툰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고전 콘텐츠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고전문학의 정수로 손꼽히는 <춘향전>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춘향전>과 같은 고전문학 작품을 지

역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콘텐츠로 잘 활용할 때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고전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나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춘향 서사의 변용

제목에서도 짐작되듯 <향단전>은 춘향의 시비(侍婢)인 향단을 여주인공으로 새롭게 내세움으로써 기존 <춘향전>의 서사를 비틀고 변용해낸다. 이와 같은 춘향 서사의 변용은 <향단전>의 전편을 관통하며 주요 서사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대의 스물여섯 살 취업 준비생인 유희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임 슬립을 통해 <춘향전> 춘향의 시비(侍婢)인 향단으로 빙의하며 벌어지는 일대 사건이 <향단전>의 주요한 줄거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향단전>은 <춘향전>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춘향전>의 등장인물을 등장시키지만, 원작과는 별개인 단일 작품으로 원작에서의 조연이 주인공이 되어 완전히 새

1 김수현, <남원 제작 웹툰 '향단전' 누적 조회 200만 돌파 '인기몰이'>, 『전라일보』, 2024.11.21.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016>)

2 카카오 페이지, <향단전>(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tab_type=overview)

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는바 <춘향전>의 스피노프 작품, 즉 파생작 혹은 변의작으로 볼 수 있다.³

<향단던> 1화에서 <춘향전>은 “첫눈에 반한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뒤 마침내 이야기의 끝에서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로 소개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춘향전>의 주제로 춘향과 이몽룡 간의 신분을 초월한 열정적 사랑을 표방한 것이다.

한편 <향단던>은 가진 것 없는 고아로 자란 탓에 “출발점이 남들보다 열 걸음은 더 물러나 있었다”고 느끼며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필사적으로”⁴ 임하던 유행기가 불시에 <춘향전> 속으로 들어가 향단으로 빙의한 뒤,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과 다른 쪽으로 발을 내딛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뒤엎어”⁵ 보는 과정을 담아낸다. 이에 <향단던>에서는 <춘향전>의 핵심 서사였던 성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후경화(後景化)되며, 향단과 변학도 사이에 피어나는 로맨스를 주축으로 향단과 변학도의 성장 드라마가 주요하게 펼쳐진다. 즉, <향단던>은 독자들에게 익숙한 춘향 서사를 빌려와 독자층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서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틀을 전복시켜 춘향 서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냄으로써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현대 웹툰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낼 수 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단던>은 <춘향전>에서 조연에 불과했던 향단을 여주인공으로, 반동 인물이었던 변학도를 남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시킨다. 이에 <춘향전>에서 평면적 캐릭터로만 등장하던 향단과 변학도는 <향단던>의 구체적인 인물 설정을 거쳐 나름의 사연과 배경을 지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주요 인물로 변모한다. 가령 다음의

예문은 <향단던>에서 향단의 캐릭터가 재창조되는 국면을 보여준다.

① “서운해하지 마. 당연한 결과야. 뭘 기대한 거니? 출발점이 다른데 뭘 어찌겠어? 어렸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 그때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그리고 내 출발점은 남들보다 열 걸음은 더 물러나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필사적으로 했지만... (...) 그냥 수궁하고 사는 게 편하기는 했다. 다른 사람들의 뻔한 충고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불쌍했다. 어차피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책임도 결과도 전부 내 것이라면-차라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그건 조선시대라도 변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춘향이도-”⁶

② “저는 남들보다 몇 계단 아래에서 출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안쓰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눈빛이 싫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헌데 ... 그렇게 해서 네가 바라던 결과는 얻었느냐?”

“아뇨,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⁷

③ “향단아.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마. 우린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⁸

<향단던>은 <춘향전>의 최하층 인물인 시비(侍婢) 향단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전격 발탁함으로써 이전의 춘향 서사에서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소외된 계층으로서 시비 향단이 처해 있던 존재 여건을 현대적 시각에서 살펴

3 스피노프의 개념에 관해서는 김용원·전승규, 「스피노프 영화에 나타난 원작 캐릭터의 재해석 특징 연구: <말레피센트>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7(2), 기초조형학회, 2016, 40쪽.

4 15화.

5 27화.

6 15화.

7 22화.

8 53화.

볼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의 예문을 통해 확인되듯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고통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처럼 향단이 소외된 존재로서 캐릭터의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유행기라는 현대의 새로운 인물을 경유한 결과이다. 타임슬립을 통해 <춘향전> 속의 향단으로 빙의하게 된 유행기는 지방의 고아 출신으로 혼자 서울에 올라와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는 스물여섯 살의 취업 준비생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삶을 위해 향기로서의 운명을 거부하고 향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인 ③에서도 확인되듯, 현대의 소외 계층으로서 유행기가 영위해나가던 고단한 삶은 전근대의 최하층 인물로서 <춘향전>의 향단이 감내해야 했을 지난한 삶의 모습과 서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둘은 겹쳐 보이며 그 고통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한편 <춘향전>에서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줄곧 비판받는 존재로서 대상화되던 변학도는 <향단전>에서 출신 가문, 성장 과정 등의 구체적 설정을 통해 사연 있는 남주인공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지역 유지들과의 갈등이나 주변 인물인 이방의 조언 장면 같은 서사적 장치를 획득함으로써 개연성을 가진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

④ “약관을 넘어도 혼인을 하지 않은 자가 사또라고 왔다는 게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좋게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존경받는 어르신의 따님과 혼인하시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니 다만... (….) 저번에 보신 춘향이 딸입니다. 그 애 아버지가 이전 사또셨는데, 정말 존경을 많이 받았습죠.”⁹

⑤ “뜬금없이 혼인이라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하오나 나으리... 선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나으리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인을 하여 대를 잇는다는 것은 인의

예지를 지키는 일. 허나, 나으리께서는 약관을 넘기셨음에도 혼인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것이 트집 잡을 흠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왜, 하필 춘향과 혼인을 하라는 거지?”
 “그건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인과 예에 통달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런 대단한분의 딸과 혼인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나?”
 “물론입니다요.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걸 보이는 것으로 사또께서도 그들과 같다는 걸 보이셔야 합니다.”¹⁰

⑥ “우리 형님은 변씨 집안의 장남으로 모두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 부모님께선 형님의 인생이 완벽하길 바라셨고, 출사부터 혼인까지 전부 당신들의 뜻을 따르길 바라셨어. 하지만 형님의 선택은 달랐지. 형님께선 양반가의 여식이 아닌 평범한 여인과 혼인을 올렸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는 의절하시게 된 거야. 그리고 그런 형님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태어난 게... 나야. 난 떠나버린 형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어. 내가 바란 것도 아녜는데, 마치 내가 바랐던 것처럼. 모두가 내게 완벽을 요구했어. 그래서 내겐 남원이 절호의 기회 같은 거야. 부모님께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첫걸음 같은 곳 이거든, 뭐 뜻대로는 잘 안되지만....”¹¹

⑦ 형님은 성실을 그린 듯한 사람이었다. 비록 나와 같은 곳에 존재하진 않았지만 지겨우리만큼 내 걸을 맴돌아 나를 한없이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은 얼마나 끔찍한지. 형님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인정받고 싶었다. 그와 동시에 언젠가 떠나간 형님께서 다시 돌아와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질까 몹시도 두려웠다.¹²

10 3화.
 11 22화.
 12 40화.

예문 ④, ⑤는 남원에 갓 부임한 변학도가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호의적인” “지역의 오랜 유지들”¹³과의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춘향과의 혼인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변학도를 보좌하는 이방은 “이 사태를 해결할 묘책”¹⁴으로 춘향과의 혼인을 제안하고, “혼인할 마음은 없”음에도 “남원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게 우선”¹⁵인 변학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했던 것에 미색에 대한 탐심 외에 다른 이유가 없던 것과 달리, <향단연>에서는 그 배경이 상세히 제시됨으로써 변학도가 <춘향전>의 반동 인물을 넘어 남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 <향단연>은 ⑥, ⑦에서와 같이 변학도의 출신 가문과 성장 과정에 대한 서사를 보충함으로써, 남원부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변학도의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모습이 조명될 수 있었다.

이처럼 <향단연>은 춘향 서사에서 최하류층 조역 인물인 향단과 최상류층의 반동 인물인 변학도를 서사의 주인공으로 호출하고 그 배경 서사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이에 향단을 통해서든 든든한 울타리와 배경을 갖지 못한 소외된 젊은이의 고통과 애환을, 변학도를 통해서든 기성세대의 무리한 요구에 버거워하는 청년세대의 또 다른 부담감을 잘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서사를 통해 캐릭터의 구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서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향단과 변학도는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사의 초반, 변학도는 남원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 부모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에 춘향에게 “마음을 나눈 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음에도 “좋은 가문

에 시집을 가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딸 된 자의 도리이자 기쁨”이므로 “다른 이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영광”¹⁶을 주겠다고 자신과의 혼인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남에 향단과의 만남을 통해 남원 인심을 얻는 일은 “혼례로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이므로 “내가 더 노력해 보는 게 먼저”¹⁷임을 깨닫게 되며, 자신에게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는 짐을 떠넘겼다고 원망하던 향단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가 바라는 것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더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에 변학도는 “타인이 세운 기준”에 “엎매이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을 따르면서도 그럴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향단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¹⁸

향단 또한 변학도와 만나며 “가진 것 하나 없”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살”며 “보람”을 찾아 헤매던 향기의 모습에서 벗어나,¹⁹ “세상에 발붙이고 살 이유를 만들어 준 사람들”을 만나며 “이 사람들과의 행복만을 지켜나가”려던 타임 슬립 직후의 시간을 통과하며 변학도와 함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뒤엎어 보”기로 결심한다.²⁰

이에 <향단연>은 변학도처럼 물질적·사회적 기반을 가졌거나, 향단처럼 그런 것을 갖지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각기 지니는 삶의 애환과 고통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나 기대, 원망, 동정 등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⑧ “언제나처럼 가문의 역할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좋겠죠. 허나 세상에 중요한 것이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가문을

13 2화.

14 2화.

15 3화.

16 6화.

17 19화.

18 40화.

19 22화.

20 27화.

지키는 것만으로 행복할까요?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인연으로 맞닿아 둘도 없이 소중한 지금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행복을 찾았어요.”²¹

이에 두 사람은 “자고로 혼인이란 서로 뛰어난 양반가끼리 혼인을 하여, 조정 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양반가에 있어 혼인이란 건 가문의 이익을 위해 맺는 계약과도 같은 것”²²임을 강변하는 변학도의 부모에게 ⑧에서와 같이 대답하며 혼인하는 데 이른다.

이상에서 살핀바 <향단연>은 <춘향전>의 기존 서사를 전복시킴으로써 조연 인물을 주연으로 부각하고 타임 슬립 등의 서사적 장치를 활용해 현대적 감각을 확보하며 <춘향전>의 세계를 재해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향단연>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 나가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바, 이는 <춘향전>이 제기한 춘향의 주체성이라는 문제와도 맥이 닿아 보인다. 이에 <향단연>은 춘향전의 인물, 사건, 배경만을 변용했을 뿐 아니라, 그 주제 의식 또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고전 서사의 상호 텍스트성 구현

<향단연>은 주요 서사로 <춘향전>을 변용하면서도 <홍부전>과 같은 고전소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선녀와 나무꾼>, <견우직녀>와 같은 설화, 『용재총화』 같은 문헌설화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향단연>은 서사의 세계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었을뿐더러, 독자들에게 친숙함을 통한 흥미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향단연>은 현대의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홍부전>의 인물을 활용하여 홍부를 향단의 조력자로, 놀부

를 악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익숙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고전 서사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홍부가 처음 등장해 자신을 소개하는 제11화의 댓글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은 “다른 동화도 섞여 있을까? 이런 거 너무 좋다.”는 댓글을 남기며, “전래동화 다 섞여 있는 세계관”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상에나 홍부라니! 전개가 궁금해지는걸요?”, “까득 홍부의 등장이라니 재미 있어지는군요”²³ 등 독자들이 홍부의 등장으로 새롭게 전개될 <향단연>의 서사에 큰 기대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 2화부터 줄곧 변학도의 주변 인물로 주요하게 등장한 이방이 놀부라는 사실이 24화에 와서야 밝혀지는데, 이는 현대인으로서 전통시대로 타임 슬립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 전래동화 <춘향전>과 <홍부전>의 서사에 익숙한 향단에게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독자들에게도 흥미진진한 서사적 장치로 인식된다. 독자들은 “와우 놀부였다니 대흥미진진”,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이마까지 소름 돋았어요 대박이다 와”²⁴ 등의 댓글을 통해 비로소 밝혀진 악역의 정체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놀부가 전래동화 속 놀부인지도 확실치 않고, 적어도 내가 읽었던 동화에선 놀부가 이방이란 얘기는 없었”음을 상기하며 “이건 춘향전...이 맞나?”²⁵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향단의 모습은 이 <향단연>의 서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기대와 맞닿는다.

그뿐 아니라, <춘향전>의 전형적인 반동 인물 변학도가 남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향단연>은 악인형 인물의 부재에 따라 주요한 갈등이 소거된바 서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향단연>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놀부라는 <홍부전>의 반동 인물을 악역으로 새

²³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4057002/comment?sortType=like>

²⁴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4715171/comment>

²⁵ 24화.

²¹ 54화.

²² 54화.

롭게 활용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보완해 흥미를 높이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었다.

또 16화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4~25화에서 <견우직녀>,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고전 서사의 전통이 <향단연>의 서사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독자들은 “혹시 여기 전래동화 총집합인가요”²⁶, “와 전래동화 믹싱. 춘향전, 흥부와 놀부, 견우와 직녀까지 너무 좋아요. 전개될수록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되네요”²⁷ 등의 댓글을 통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5화에서 변학도와 향단이 오작교를 거닐며 <견우직녀> 설화와 관련해 “견우와 직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말은 그렇다 쳐도 둘은 진정한 사랑을 나눴”으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사랑도 있”²⁸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서사적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견우직녀> 설화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향단연>의 결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두 사람의 로맨스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던 독자들이 타임 슬립으로 인한 시대적 차이에 주목한 결과,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25화의 “너흰 견우와 직녀가 아니야!!! 너희 둘은 이어져!!!! 내가 미래 보고 왔다고!!!!”²⁹와 같은 댓글을 통해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39, 41, 43~47화에 걸쳐 “양반들을 노리는 귀신”으로 등장하는 적염귀(赤髯鬼)는 성현(成俔)이 지은 필기잡록류(筆記雜錄類) 『용재총화』에서 “못자리를 빼앗겨 앙심을 품은 악귀”라는 설정을 차용해 온 것이다. 본래 『용재총화』에 전하는 이 이야기는 높은 지위에 오른 정승 권아무개가 무덤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의 무덤

을 파헤쳐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냈는데, 그날 밤 권아무개에게 못자리를 점지해준 풍수가의 꿈에 자줏빛 수염의 사내가 나타나 자신의 편안한 집을 빼앗았다며 그 가슴을 주먹으로 치니 풍수가가 즉사하고, 얼마 뒤 정승도 사형을 당해 그 집안까지 몰락했다는 내용이다.

<향단연>은 일반 대중에게 낯선 고전 서사의 존재인 적염귀를 호출하고, 이를 “천민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던”²⁹ 노비의 캐릭터로 재해석하였다. 본래 『용재총화』의 이야기에서 자줏빛 수염의 사내[적염귀]는 “비록 벼슬을 낮았지만 마음가짐이 엄숙하고 의지가 굳세어 범상한 분이 아니셨던”³⁰ 것으로 서술되었으므로 한미한 양반 출신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향단연>은 이를 천민으로서 양반에게 꺾박당해 “양반들을 잔혹하게 살해하”³¹는 캐릭터로 조정함으로써, 향단이 이런 적염귀와의 만남을 통해 노비로서 지니는 자신의 존재 여건을 깊이 성찰하고, “길을 잃어 그들을 떠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들 곁에서 길을 찾고 싶었”³²던 자기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서사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향단연>은 현대인들에게도 전래동화 등으로 잘 알려진 <흥부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선녀와 나무꾼>, <견우직녀> 등을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익숙함에서 오는 흥미를 맛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용재총화』의 적염귀처럼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소재를 차용해 옴으로써 <향단연>의 서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향단연>은 다양한 고전 서사의 상호텍스트성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흥미롭고 풍성한 서사 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

26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4297248/comment>

27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4715171/comment?sortType=like>

28 25화.

29 46화.

30 성현, 강해규 편역, <무덤을 파헤친 빌>, 『용재총화』, 2016, 돌베개, 190쪽.

31 46화.

32 47화.

4. 지역 문화콘텐츠로의 재창작

〈향단연〉 이전의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들은 각 지역 홍보 사이트나 지역 콘텐츠 사이트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았다.³³ 그런데 이와 달리 관(官) 주도로 지역 문화자산인 〈춘향전〉을 주요하게 활용해 제작한 웹툰 〈향단연〉은 여타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들과는 달리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 1년간 연재되었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만든 웹툰을 플랫폼에 정식 연재를 시작한 점은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도전”이라며 “시는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정식 연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세대에 남원을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 등의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³⁴

실제로 이 작품은 2024년 4월 4일에 연재가 시작된 이래 3개월 만인 7월에 조회수 100만을, 8개월 만인 11월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³⁵ 이에 〈향단연〉이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을 통해 연재됨으로써 일반 대중 독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 〈향단연〉이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무려 1년간 총 54화의 장편 작품으로 연재되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들은 평균 8화, 길어봐야 11~12화의 단편 형태로 대부분 만

들어졌는데, 이는 공모 사업의 일회적 성격으로 인해 중장편으로 제작이 가능한 작품들도 단편작으로 완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³⁶

그런데 〈향단연〉은 장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춘향전〉의 기존 등장인물뿐 아니라, 〈홍부전〉의 홍부와 놀부, 『용재총화』의 적염귀, 변학도의 가족들 등 다양한 인물을 새롭게 등장시키고 여러 사건을 전개하며 남원고을을 배경으로 하는 다채로운 서사를 풍부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또, 〈향단연〉은 스펀오프 방식으로 기존의 유명 텍스트인 〈춘향전〉을 재해석하면서도, 빙의 모티프를 활용해 일반 로맨스 판타지 웹툰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³⁷ 이에 독자들은 “오니 남원시 제작지원인거 이제 알았네ㅋㅋㅋㅋ남원시 힙하다..”³⁸ 등의 댓글을 통해 〈향단연〉을 일반 로맨스 판타지 웹툰으로서 먼저 받아들였다가 관 주도의 지역 브랜드 웹툰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음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향단연〉은 관 주도의 지역 브랜드 웹툰으로 출발했음에도 대중 독자들에게 일반 웹툰들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재미를 제공하며 많은 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밖에 〈향단연〉은 다양한 서사 전략을 통해서도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경쟁력 또한 갖출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향단연〉은 지역의 중요한 무형 문화유산인 〈춘향전〉의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독자들은 “남원시 살고있습니다. 이번 년도 부터 드더 ‘홍보’ 라는걸 배웠군요 애간장타서 죽을뻔 했

33 장예준은 관공서 및 공사의 지원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연재된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 작품은 소수일 뿐 각 지역 홍보 사이트나 지역 콘텐츠 사이트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힌 바 있다. 장예준,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의 서사적 특성과 스토리텔링 전략」, 『Journal of Korean Culture』 60, 2023, 590쪽 참조.

34 신기철, 「남원시, 창작웹툰 ‘향단연’ 카카오페이지 정식 연재...매주 수요일 공개」, 『전북일보』, 2024.4.4. (<https://www.jjan.kr/article/20240407580085>)

35 천희철, 「남원시 웹툰 ‘향단연’ 조회수 100만 돌파」, 『전민일보』, 2024.7.17.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354>); 김수현, 앞의 기사.

36 장예준, 앞의 논문, 593~596쪽.

37 로맨스 판타지물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바, 이것은 로맨스 판타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이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장치인 회빙환[회귀, 빙의, 환생]은 작품의 첫 장면에서 주인공이 거쳐야 할 클리셰로 등장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애니메이션연구』 55,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100쪽 참조.

38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3881933/comment>

어요 춘향이라는 유명하고 좋은 소재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해 먹는지 하고 근데 드려 ‘홍보’라는걸 배워 다행입니다.”³⁹ “남원시 홍보 꽤 한다?”⁴⁰라며 <춘향전>의 재해석에 대해 크게 호응하였다.

그러나 <향단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홍부전>과 같은 지역의 고전 서사에서 홍부와 놀부의 캐릭터를 차용해서 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⁴¹ 4~5화에서 추어탕과 같은 지역의 명물 향토 음식을 서사에서 주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11화에서 향이와 몽이 같은 지역 마스코트를 등장시키며, 25~25화에서 광한루원, 오작교 등 지역의 명승지를 서사의 주요한 배경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남원 지역의 브랜드 웹툰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에 독자들은 추어탕의 등장과 관련해 “그래서 남원 추어탕이 유명한가보네...”, “왜 추어탕인가 했는데 남원ㅋㅋㅋㅋ 남원시 공무원 일잘러ㅋㅋㅋㅋ”⁴² 등의 댓글을 남기며 재미를 찾기도 하고, 지역 마스코트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남원시 마스코트 계속 나오는 거 개웃기네ㅠㅠ 너 남원시 공무원 준비했니??”, “와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자주 나오는 저 분홍 파랑 캐릭터는 남원시 향이랑 몽이고, 홍부와 놀부도 캐릭터에 포함되어 있네요ㅋㅋㅋㅋ 아 홍보 잘한다ㅠㅠ 캐릭터에 강쇠와 웅녀도 있던데 나올지 궁금해지네요ㅋㅋ”⁴³ 등의 댓글을 통해 남원에 대해 흥미를 갖고 관련 정보를 찾아 공유하기도 했음

이 확인된다.

또, 지역 명승지인 광한루원과 오작교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와 진짜 광한루원 배치랑 경관이 실제랑 똑같아요 ㄷㄷ”라며 감탄하는 댓글,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광한루원 가보셨어요? ㄹㅇ 저따시만한 잉어 있어요.....진심 ㅊㅊ 찾아보세요”⁴⁴라며 광한루원의 잉어에 대해 다른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댓글 등도 확인된다.

최근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의 경우, 홍보 대상을 선정하여 드러내되 홍보 대상과는 별개의 이야기로서 어떤 주제를 구현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주된 창작 경향으로, 홍보 대상이 들어간다는 점만 제외하면 일반 웹툰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대상과는 별개의 이야기로서 작품을 구성할 경우에도 홍보 대상과 긴밀히 연관시켜야 한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된 바 있다.⁴⁵ <향단연> 또한 이러한 지역 브랜드 웹툰의 최근 경향을 따라 일반 웹툰의 로맨스 판타지로서 먼저 독자에게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가는 전략과 함께, 지역 브랜드 웹툰으로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서사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다각도에서 효과적으로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5. 결론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인 지금 고전소설 <춘향전>을 웹툰으로 재해석해 대중적 인기를 크게 얻은 <향단연>의 창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주목할만한 고전문학 콘텐츠의 한 성공 사례를 학계에 보고하고 <춘향전>과 같은 고전문학 작품을 지역에서

39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3881927/comment>

40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3881931/comment>

41 본고의 172~173쪽에서 <향단연>이 현대의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홍부전>의 인물을 활용하여 홍부를 향단의 조력자로, 놀부를 악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익숙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향단연>의 <홍부전> 인물 활용은 이 밖에도 지역 고전 서사 콘텐츠의 활용이라는 의미 또한 갖는다.

42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3881933/comment>

43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4057002/comment>

44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viewer/64786996/comment>

45 장예준, 앞의 논문, 622쪽.

디지털 미디어의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웹툰 <향단던>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향단던>이 <춘향전>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그 등장인물을 등장시키지만, 원작과는 별개인 단일 작품으로 원작에서의 조연이 주인공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는바 <춘향전>의 스펀오프 작품, 즉 파생작 혹은 변외작으로서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단던>은 익숙한 춘향 서사를 빌려와 독자층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 서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틀을 전복시켜 현대 웹툰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내었다. 이에 <춘향전>에서 조연에 불과했던 향단과 변학도는 <향단던>의 구체적 인물 설정을 거쳐 나름의 사연과 배경을 지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주요 인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이처럼 <향단던>이 춘향 서사에서 최하류층 조역 인물인 향단과 최상류층의 반동 인물인 변학도를 서사의 주인공으로 호출하고 그 배경 서사를 구축한 결과, <향단던>은 이 시대의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지니는 삶의 애환과 고충을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나 타인의 시선 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향단던>이 <춘향전>의 세계를 재해석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바, 이는 <춘향전>이 제기한 춘향의 주체성 문제와도 맥이 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단전>이 춘향전의 인물, 사건, 배경만을 변용했을 뿐 아니라, 그 주제 의식 또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변용한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향단던>이 주요 서사로 <춘향전>을 변용하면서도 <홍부전>과 같은 고전소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선녀와 나무꾼>, <견우직녀>와 같은 설화, 『용재총화』 같은 문헌설화 등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고전 서사의 상호텍스트성을 구현하였음을 살폈다. 이에 <향단

던>은 서사의 세계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었을뿐더러, 독자들에게 전래동화 등으로 잘 알려진 고전 서사를 활용해 독자들이 익숙함에서 오는 흥미를 맛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소재를 차용해 서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향단던>이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을 통해 장편의 형태로 연재됨으로써 관 주도의 지역 브랜드 웹툰으로 출발했음에도 일반 대중 독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일반 웹툰들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재미를 제공하며 많은 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음을 밝혔다. 또, <향단던>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무형 문화유산인 <춘향전>의 재해석하면서, 지역 고전 서사 콘텐츠의 등장인물을 차용해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지역의 명물 향토 음식을 서사에서 주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지역 마스코트를 등장시키며, 지역의 명승지를 배경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서사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남원 지역 브랜드 웹툰으로서의 경쟁력 또한 갖출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신 인기 웹툰 <향단던>을 분석한 본고의 논의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고전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나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카카오 페이지, <향단던>

(https://page.kakao.com/content/63697399?tab_type=overview)

카카오웹툰, <향단던>

(<https://webtoon.kakao.com/content/%ED%96%A5%EB%8B%A8%EB%8E%90/4073>)

성현, 강혜규 편역, 『용재총화』, 2016, 돌베개.

2. 단행본 및 논문

김용원·전승규, 「스핀오프 영화에 나타난 원작 캐릭터의 재해석 특징 연구: <말레 피센트>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7(2), 기초조형학회, 2016.

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애니메이션연구』 55,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장예준, 「지역 자원 브랜드 웹툰의 서사적 특징과 스토리텔링 전략」, 『Journal of Korean Culture』 60, 2023.

3. 기타 자료

김수현, 「남원 제작 웹툰 '향단던' 누적 조회 200만 돌파 '인기몰이」, 『전라일보』, 2024.11.21.

신기철, 「남원시, 창작웹툰 '향단던' 카카오페이지 정식 연재...매주 수요일 공개」, 『전북일보』, 2024.4.4.

천희철, 「남원시 웹툰 '향단던' 조회수 100만 돌파」, 『전민일보』, 2024.7.17.

Abstract

The Creation Method of the Classic Literature Content Webtoon *Hyangdandion* in the Digital Media Era

Chung, Bora-Mi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reative method of the highly popular webtoon *Hyangdandion* to report successful cases of classical literature content that is noteworthy in the digital media era, and to consider using classical literature as digital media content in the region.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how *Chunhyangjeon* was transformed in *Hyangdandion*.

Next, it was examined that *Hyangdandion* realized the intertextuality of classical narratives by using various classical narratives.

Finally, it was revealed that *Hyangdandion* was serialized in the form of a feature through major platforms, increasing readers' accessibility even though it was a local brand webtoon, providing enough fun to keep up with ordinary webtoons, and gaining popularity among the public.

Keywords *Hyangdandion*, *Chunhyangjeon*, Classical Literature Content, Classical Content, Transformation, Local Brand Webtoon